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9. 05. ~ 09. 11.

전남농업정보

102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엽근채류(배추·무·감자·당근·양배추) 관측
- 과채류(풋고추·오이·애호박·수박·참외·토마토) 관측
- 과일류(사과·배·단감·포도·복숭아) 관측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우리 배 세계 곳곳에
- 우리 쌀 가공식품 유럽 시장 진출 노력만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유자 고품질 인정생산, 현장 맞춤형 컨설팅
- 배추 농사 기계이식으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한다

정책동향

- 전통식품 대상품목 확대 및 규격 현실화
- 추석 대비 소 브루셀라병 검사 시간 단축

사업신청 및 홍보

- 한국 유기농식품 세계에 알리다!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보다 전반에는 조금 높겠고, 후반에는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3~8mm)보다 적겠음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엽근채류 (배추·무·감자·당근·양배추) 관측
- ▶ 과채류 (풋고추·오이·애호박·수박·참외·토마토) 관측
- ▶ 과일류 (사과·배·단감·포도·복숭아) 관측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3

- ▶ 담양군,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전통 식품의 세계화로
- ▶ 곡성군, 과수해충 급증 8일부터 집중방제 실시
- ▶ 고흥군, “고흥유자” 수출확대 맞춤형 현장컨설팅 개최
- ▶ 보성군, 보성 농업회사법인 도담, 라오스 정상방문 경제사절단 참가
- ▶ 화순군, 지역 축제, 농·특산물 홍보 박차
- ▶ 강진군, 강진 발명 딸기육묘판으로 키운 딸기모종 대박
- ▶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추석연휴에도 탄력적 운영
- ▶ 영광군, 양파기계화 교육 및 시연회에 농민들 큰 관심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1

- ▶ 우리 배 세계 곳곳에
- ▶ 우리 쌀 가공식품 유럽 시장 진출 노려볼 만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3

- ▶ 배 '원황' 품종의 낙엽정도에 따른 이듬해 수량감소 및 경감방법
- ▶ 말벌 피해예방을 위한 포도 간이 비가림재배에서 방충망 설치 효과
- ▶ 인디언시금치 가을작형 월동재배 경제적 가온방법
- ▶ 자생숙을 이용한 아로마 쪽비누 제조방법
- ▶ 농업분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기술 세미나
- ▶ 배추 농사 기계이식으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한다
- ▶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 다양한 아이디어 선보여
- ▶ 꾸지뽕나무 잎으로 누에를 키우다
- ▶ 유자 고품질 안정생산, 현장 맞춤형 컨설팅
- ▶ 봉지 씌우지 않는 배 재배로 노동력 줄인다
- ▶ 버섯응애 친환경 방제법 국내 첫선 보인다
- ▶ 수수·조 수확기 병해충, 이렇게 관리하세요

❁ 정책 동향 41

- ▶ 전통식품 대상품목 확대 및 규격 현실화
- ▶ 추석 대비 소 브루셀라병 검사 시간 단축
- ▶ 시설원에 지원사업 수요조사, 예비신청 등 내년도 사업 준비 본격화

❁ 해외 농업정보 45

- ▶ 전남의 선진농업기술, 라오스에 전파한다
- ▶ 아시아 유기농업·유전자원 관리 동반성장 이끈다
- ▶ 베트남 식품 소비트렌드 3대 키워드 : 유기농, 안전, 위생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9. 09.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3% 하락 마감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9% 상승 마감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5% 상승 마감하였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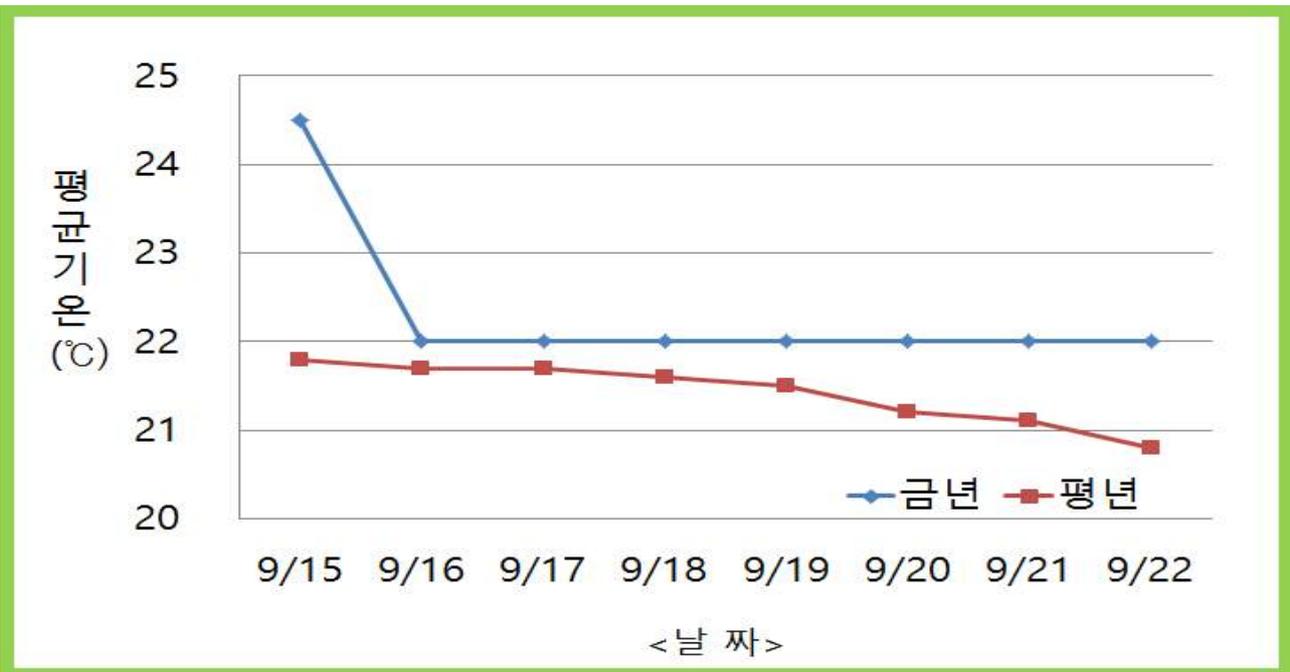
- ▶ 한국 유기가공식품 세계에 알리다!
- ▶ 한농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농수산·도시인재전형 원서접수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2.3	21.4	2.8	27.3	26.7	2.2	17.4	17.1	2.2	4.7
9. 15.(목)	24.5	21.8	4.3	30.0	26.9	4.9	19.0	17.7	2.8	6.1
9. 16.(금)	22.0	21.7	2.9	26.0	26.9	2.8	18.0	17.6	2.0	6.0
9. 17.(토)	22.0	21.7	2.6	27.0	27.0	2.0	17.0	17.4	2.1	4.9
9. 18.(일)	22.0	21.6	2.4	27.0	26.9	1.3	17.0	17.3	2.4	4.4
9. 19.(월)	22.0	21.5	2.1	27.0	26.8	1.3	17.0	17.2	1.8	4.2
9. 20.(화)	22.0	21.2	2.3	27.0	26.6	1.5	17.0	16.8	2.0	4.0
9. 21.(수)	22.0	21.1	2.6	27.0	26.4	1.8	17.0	16.6	2.2	4.0
9. 22.(목)	22.0	20.8	2.8	27.0	26.0	2.0	17.0	16.5	2.4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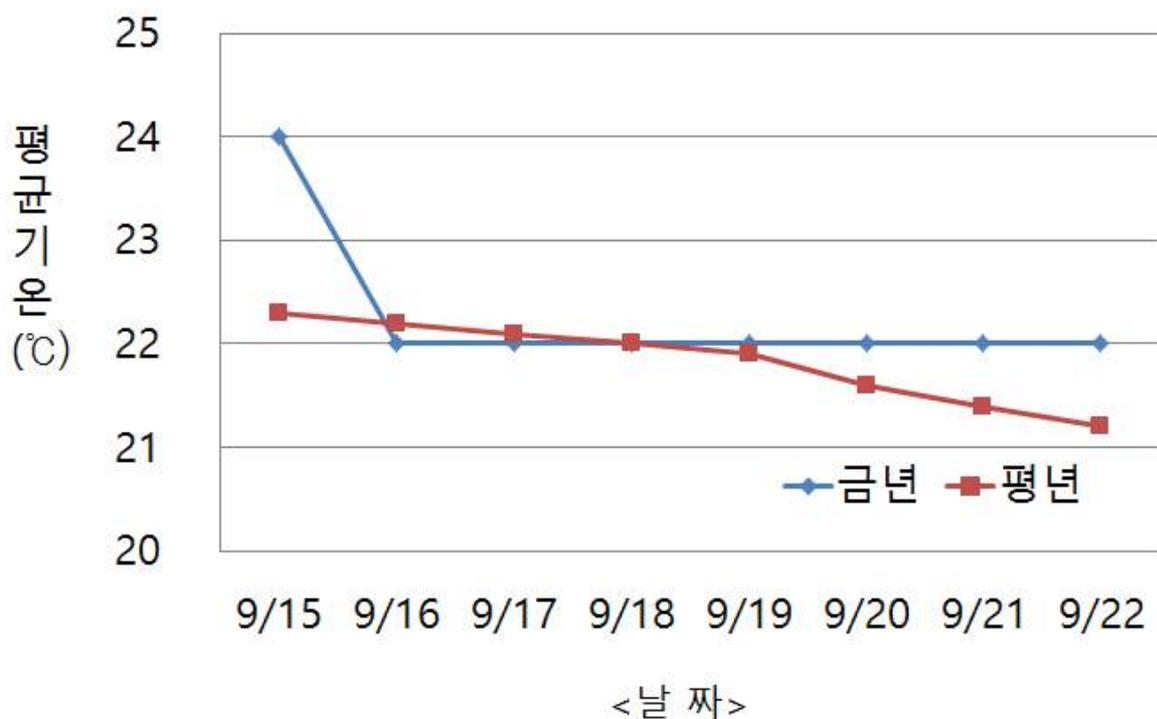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2.3	21.8	0.4	26.1	26.6	-0.5	18.4	18.2	0.2	5.1
9. 15.(목)	24.0	22.3	1.7	28.0	26.9	1.1	20.0	18.9	1.1	5.4
9. 16.(금)	22.0	22.2	-0.2	25.0	26.9	-1.9	19.0	18.7	0.3	5.6
9. 17.(토)	22.0	22.1	-0.1	26.0	26.8	-0.8	18.0	18.5	-0.5	6.1
9. 18.(일)	22.0	22.0	0.0	26.0	26.8	-0.8	18.0	18.4	-0.4	5.6
9. 19.(월)	22.0	21.9	0.1	26.0	26.7	-0.7	18.0	18.2	-0.2	4.9
9. 20.(화)	22.0	21.6	0.4	26.0	26.5	-0.5	18.0	17.9	0.1	4.5
9. 21.(수)	22.0	21.4	0.6	26.0	26.2	-0.2	18.0	17.7	0.3	4.6
9. 22.(목)	22.0	21.2	0.8	26.0	26.0	0.0	18.0	17.5	0.5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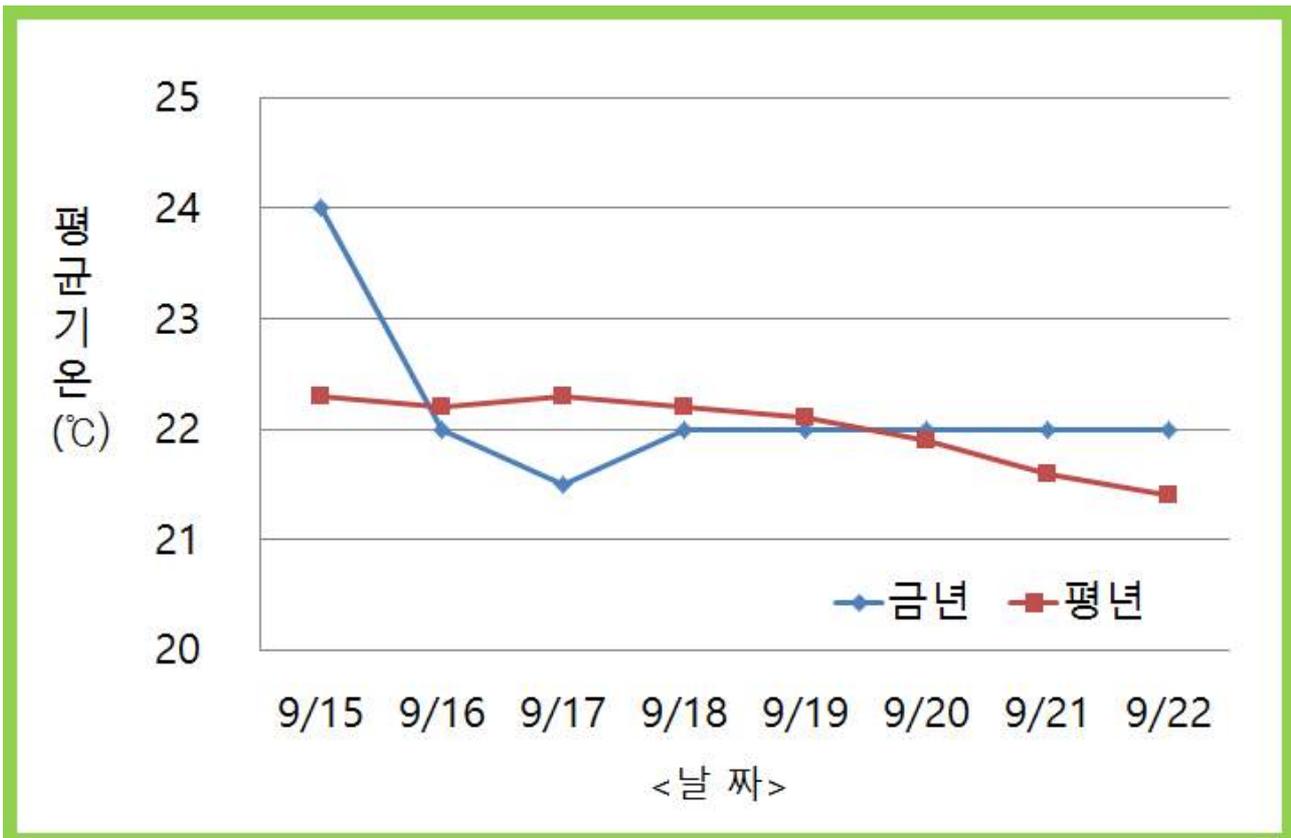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2.2	22.0	0.2	25.1	25.4	-0.3	19.3	19.2	0.1	4.1
9. 15.(목)	24.0	22.3	1.7	27.0	25.6	1.4	21.0	19.5	1.5	5.1
9. 16.(금)	22.0	22.2	-0.2	24.0	25.6	-1.6	20.0	19.5	0.5	4.6
9. 17.(토)	21.5	22.3	-0.8	25.0	25.7	-0.7	18.0	19.4	-1.4	4.2
9. 18.(일)	22.0	22.2	-0.2	25.0	25.7	-0.7	19.0	19.3	-0.3	3.6
9. 19.(월)	22.0	22.1	-0.1	25.0	25.5	-0.5	19.0	19.2	-0.2	3.5
9. 20.(화)	22.0	21.9	0.1	25.0	25.3	-0.3	19.0	19.0	0.0	3.0
9. 21.(수)	22.0	21.6	0.4	25.0	25.1	-0.1	19.0	18.8	0.2	3.2
9. 22.(목)	22.0	21.4	0.6	25.0	24.7	0.3	19.0	18.7	0.3	5.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엽근채류 (배추·무·감자·당근·양배추) 관측

- 배추·무 추석 이전 가격은 8월 하순보다 낮고, 추석 이후는 더 낮아질 듯
 - 배추·무 가격은 추석 이전까지 8월 하순 대비 다소 하락하고, 추석 이후 수요 감소로 더 낮아져 각각 1만 6천원/10kg, 1만 7천원/18kg 내외 전망
 - 감자(수미)는 저장봄감자 및 고랭지감자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낮은 1만 9천 5백원/20kg 내외 전망
 - 당근은 지난해보다 높은 4만원/20kg 내외, 양배추는 지난해보다 높은 6천 5백원/8kg 내외 전망
- 배추·무 가을, 겨울 작형 재배(의향) 지난해보다 감소 전망
 - 가을작형 재배(의향)면적은 배추·무·당근·양배추가 지난해보다 4~7% 감소하나, 감자는 7% 증가
 - 겨울작형 재배(의향)면적은 배추·무·당근이 지난해보다 2~13% 감소하나, 양배추는 4% 증가
 - 가을 및 겨울작형 재배(의향)은 향후 정식(파종)기와 대체재 가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엽근채류 가을 및 겨울작형 재배(의향)면적 지난해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배추	무	감자	당근	양배추
가을	-3.8	-5.2	6.9	-6.8	-5.3
겨울	-4.1	-2.4	-	-13.2	3.8

과채류 (풋고추 · 오이 · 애호박 · 수박 · 참외 · 토마토) 관측

□ 채소과채 9월 가격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

- 청양계풋고추 9월 가격은 상품 10kg에 5만 3천~5만 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을 듯
- 백다다기오이 9월 가격은 상품 100개에 4만~4만 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
- 애호박 9월 가격은 상품 20개에 1만 9천~2만 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

□ 토마토·참외 9월 가격 지난해보다 높고 수박은 비슷할 전망

- 수박 9월 가격은 상품 1kg 1,000~1,300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
- 참외 9월 가격은 상품 10kg에 1만 8천~2만 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을 듯
- 일반토마토 9월 가격은 상품 10kg에 2만 4천~2만 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
 - 방울토마토 출하량 감소로 원형·대추형 모두 지난해보다 높을 듯

□ 9~10월 정식면적 전망

- 애호박·청양계풋고추 9~10월 정식면적 증가 전망
- 취청오이·방울토마토(원형·대추형)·녹광풋고추 9~10월 정식면적 감소할 듯
- 백다다기오이 9월 정식면적 비슷, 10월은 증가할 듯
- 일반토마토·수박 9월 정식의향은 지난해보다 증가, 10월엔 비슷할 전망

과일류 (사과·배·단감·포도·복숭아) 관측

- 추석 1주 전 사과·배 가격 지난해보다 낮고, 단감은 높을 전망
 - 추석 1주 전 사과 홍로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집중되어 지난해보다 낮은 2만 6천~2만 8천원/5kg 전망
 - 추석 1주 전 배 신고 가격은 출하량이 집중되어 지난해보다 낮은 2만 4천~2만 6천원/7.5kg 전망
 - 단감 서촌조생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높은 3만 8천원~4만 2천원/10kg 전망
- 추석 이후 사과·배 제외한 과일 가격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
 - 추석 이후 9~10월 사과 가격은 중생종 사과 출하량 많아 크게 하락 전망
 - 추석 이후 9~10월 배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낮을 전망
 - 추석 이후 9~10월 단감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
 - 9월 포도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10% 내외 높을 전망
 - 9월 복숭아 가격은 출하량 많지만 추석 전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9. 12. 기준/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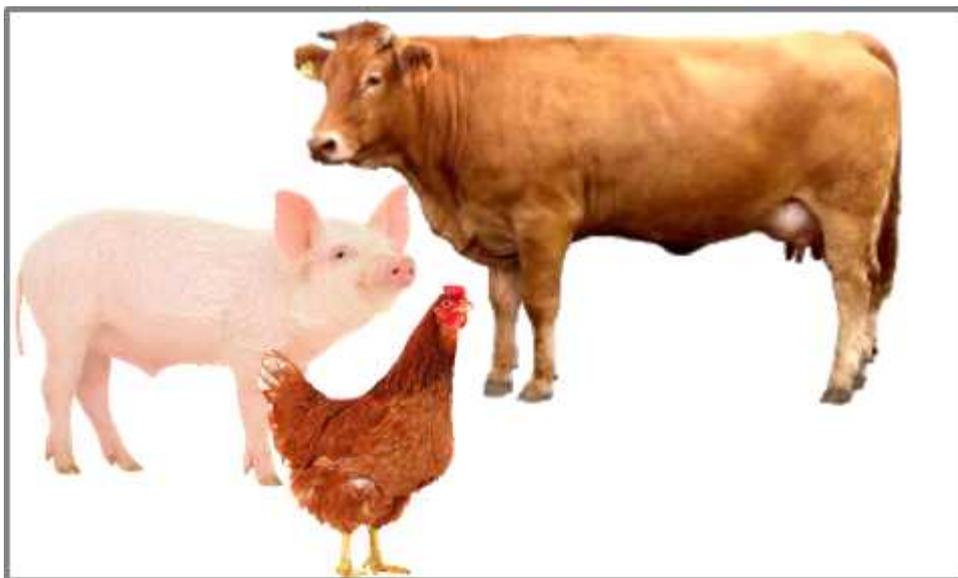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9/12)	1주일전 (09/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30kg	546,000	540,000	546,400	530,000	557,000	↑ 3.0	↓ 2.0
	콩(백태)	2kg	20,000	18,800	14,400	14,500	16,653	↑ 37.9	↑ 20.1
	고구마(밤)	2kg	9,600	10,800	7,240	8,100	9,423	↑ 18.5	↑ 1.9
	감자(수미)	100g	8,000	7,945	7,879	7,548	6,712	↑ 6.0	↑ 19.2
채 소 류	배추(고랭지)	100g	2,006	2,071	2,097	2,131	1,999	↓ 5.9	↑ 0.4
	양배추	1kg	5,247	6,169	5,053	5,175	5,384	↑ 1.4	↓ 2.5
	오이(다다기계통)	30개	5,655	5,592	5,364	5,739	5,801	↓ 1.5	↓ 2.5
	애호박	1리터	2,551	2,551	2,548	2,547	2,434	↑ 0.2	↑ 4.8
	토마토	10kg	34,000	29,200	17,240	25,700	29,373	↑ 32.3	↑ 15.8
	당근	20kg	46,000	46,400	38,320	32,000	39,993	↑ 43.8	↑ 15.0
	건고추(화건)	60kg	650,000	660,000	622,000	830,000	978,000	↓ 21.7	↓ 33.5
	풋고추	10kg	103,000	112,000	44,520	25,750	51,653	↑ 300.0	↑ 99.4
	마늘(깐마늘)	20kg	142,000	133,000	132,800	132,000	106,467	↑ 7.6	↑ 33.4
	양파	20kg	18,200	18,200	16,120	28,000	18,267	↓ 35.0	↓ 0.4
	대파	1kg	2,160	2,540	1,810	1,895	1,734	↑ 14.0	↑ 24.6
	파프리카	5kg	33,600	25,800	19,480	27,400	33,617	↑ 22.6	↓ 0.1
	멜론	8kg	23,600	21,600	21,080	18,800	22,704	↑ 25.5	↑ 3.9
	방울토마토	5kg	24,800	21,000	16,080	15,200	19,843	↑ 63.2	↑ 25.0
	수박	1개	15,200	16,600	19,640	11,300	13,180	↑ 34.5	↑ 15.3
과 류	사과(홍로)	10kg	43,600	47,200	-	37,000	44,609	↑ 17.8	↓ 2.3
	배(신고)	15kg	47,400	54,000	55,600	36,150	46,140	↑ 31.1	↑ 2.7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9/12)	1주일전 (09/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50,000	540,000	537,200	531,500	551,600	↑ 3.5	↓ 0.3
	느타리버섯	2kg	15,000	13,400	13,880	13,500	14,567	↑ 11.1	↑ 3.0
	새송이버섯	2kg	7,600	7,200	7,320	7,400	7,880	↑ 2.7	↓ 3.6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977	7,762	7,833	7,189	6,604	↑ 11.0	↑ 20.8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19	2,085	2,130	2,250	2,058	↓ 10.3	↓ 1.9
	닭고기	1kg	5,304	5,554	5,291	5,099	5,870	↑ 4.0	↓ 9.6
	계란(특란)	30개	5,442	5,422	5,269	5,773	5,802	↓ 5.7	↓ 6.2
	우유	1리터	2,548	2,548	2,549	2,547	2,385	-	↑ 6.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 추석 명절로 금주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가격정보는 다음 주 제공 합니다.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담양군,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전통 식품의 세계화로

- (주)고려전통식품 기순도 명인, 한식 세계화에 기여로 ‘산업포장’ 수상 -

- 담양군의 전통 식품이 한식의 세계화를 주도하며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주)고려전통식품 기순도 명인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6 대한민국 식품대전의 식품·외식·수출산업 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고려전통식품은 담양의 대표적인 슬로푸드 생산 업체로,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제35호 기순도 명인이 360년째 전해 내려오는 종가의 전통비법으로 담근 전통장류 및 식혜를 대표적인 식품으로 하고 있다.
- 기순도 명인은 담양의 대나무를 사용해 직접 구어 낸 죽염과 군에서 맺어준 농가와 연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과 쌀을 사용, 유기된장·유기고추장·유기간장·청국장·식혜를 빚어내고 있으며 청국장과 식혜는 미국에 수출되는 등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려나가고 있다.
- 이번 수상의 저변에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사업’이 자리하고 있는 바, 담양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역에서 우선 소비한다’는 ‘로컬푸드’ 운동을 한층 발전시켜 지역의 농업인들과 업체들이 판로 걱정 없이 농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최고품질의 농산물과 식품을 생산해내고 있다.

* 출처 : 담양군

■ 곡성군, 과수해충 급증 8일부터 집중방제 실시

-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는 최근 과수에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과수농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 외래 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는 이동성이 좋아 산에 있는 아카시아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등과 사과·배·매실·감 등을 가리지 않고 농경지와 산림지를 오가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갈색날개매미충'의 경우 농작물의 1년생 가지에 산란해 신초를 고사시키고 과수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등 작물에 큰 해를 입히고 있다.
- 이에 곡성군은 해충의 산란기 이전인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5일간을 중점 방제기간으로 정하고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산림부서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농경지 인근 산림에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 정규환 과수특작팀장은 “이동성이 좋은 갈색날개매미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공동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에서도 중점방제기간에 적극적인 방제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 고흥군, “고흥유자” 수출확대 맞춤 현장컨설팅 개최

- 고흥군은 지난 7일 유자재배 농업인, 유자 가공, 수출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자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농약 안전사용, 수출관련 시책 등에 관한 맞춤형 교육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 이날 컨설팅에는 단국대 조원대 교수, 도청 김준성 수출지원팀장, 농촌진흥청 이성찬 연구관, 김경미 박사, 농산물품질관리원 오세원 주무관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도 함께 참여했다.
-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날 교육에 수출농산물의 경우 수출국의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수출국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생산단계부터 적용하여 적합한 농약을 선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 또한, 유자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과 유자차 품질향상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했다.
- 군 농업기술센터 지용주 소장은 “명품 고흥유자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확대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앞으로 수출 대상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규격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등 현장맞춤형 전문컨설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현재, 고흥유자 재배면적은 52.7%이며, 한 해 생산량은 40.3%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대 유자 생산지를 자랑하고 있는 고흥군은 지난해 유자가공 7천 809톤 규모에 2만 968천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둬 고흥의 대표 특산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자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 농업회사법인 도담, 라오스 정상방문 경제사절단 참가

- 9.7. ~ 9.9. 기간 중 상담회를 통하여 보성녹차 연관제품 라오스 진출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의 박근혜 대통령 라오스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에 보성군 조성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도담 정순오 대표가 선정되었다.
- 정순오 대표는 연중 개설되어 있는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탈」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선정심의 (8.25.)거쳐 최종 81개사(82명)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으로 농식품 분야 명단에 포함되었다.
- 이번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하는 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하는 1:1 상담회에 라오스 인근 국가(태국·베트남 등)에서도 바이어를 초청하는 상담회 등에 참가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협조 하에 그간의 사절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식의 경제인 행사를 마련하여 참여 기업들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정순오 대표는 “이번 라오스 정상방문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하면서 보성녹차 연관제품과 다양한 브랜딩차 제품 등을 현지 바이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보성군

■ 화순군, 지역 축제, 농·특산물 홍보 박차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9월 한 달간 전남도청 행정동 1층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대표 축제와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 전남도가 추진하는 시책으로 ‘이 달의 시·군’에 선정돼 추진하는 화순군 홍보관에는 10월에 열리는 힐링푸드 페스티벌, 도심 속 국화향연 등 화순의 대표축제를 알리고 다양한 농·특산물들을 전시했다.
- 특히, 일일 평균 방문객 수가 많은 곳에 위치해 화순을 알리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 이에 화순군 전 실과소 공직자는 6일부터 3일간에 걸쳐 도청 48개 관련부서를 직접 방문해 지역축제 리플릿과 시식용 농·특산물을 제공 하는 등 도청 직원들에게 화순을 알리는데 발 벗고 나섰다.
-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시·군들이 홍보관을 운영했지만 화순처럼 공직자들이 직접 도청을 방문해 홍보에 열의를 보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 구충곤 군수는 “우리지역을 알리고, 사랑하는 일에 공직자들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공직자가 먼저 지역현안을 살피는데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화순군



■ 강진군, 강진 발명 딸기육묘판으로 키운 딸기모종 대박

- 딸기육묘판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농가 호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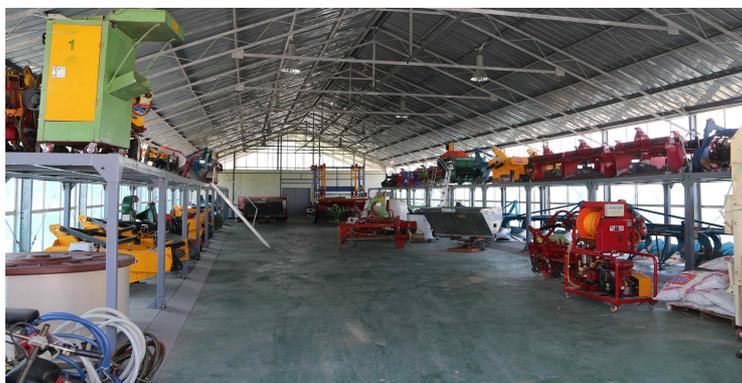
-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해 개발하여 보급한 ‘딸기육묘판’의 효과에 대해 농업인들의 호평이 이어져 화제다.
- 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수산기획평가원의 연구비를 받아 연구개발한 ‘딸기육묘판’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10농가에 보급하여 딸기모종을 만들었고, 지난 8월 25일에 강진읍 농장에서 평가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한 농업인 35명이 일제히 호평했다고 전했다. 올해 시범 보급한 딸기육묘판은 기존 육묘판에 비해 재식 거리가 넓고 관수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뿌리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안했다. 또한 딸기런너가 점적호스에 닿아 햇빛에 타는 증상을 막는 장치도 곁들여져 우량한 묘를 만드는데 집중하였다는 설명이다.
- 딸기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우량한 모종을 확보하는 것인데 모종을 만드는 농업인들은 재식거리를 짧게 하여 단위면적당 묘 개수를 많게 하므로 소득을 높이는데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모종 소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 농업기술센터는 육묘판을 개발한 직후 빠른 보급을 위해 관내 한 업체와 특허계약을 맺고 올 초부터 생산,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타 지역에서도 구입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 강진군은 육묘판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확보를 통해 내년에도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출처 : 강진군

■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추석연휴에도 탄력적 운영

- 귀성자녀 일손 감안, 연휴기간 사전출고 등으로 농가편의 도모 -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에도 농업인들의 이용편의와 귀성일손 등을 감안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군은 명절에 귀성하는 자녀들이 연휴기간 동안 부모님의 일손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사일을 거드는 경우가 많아 농기계 사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기간 동안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 12, 13일에 사전 임대하여 사용한 후 연휴기간 중인 16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반납하면 되고, 17, 18일에 사용을 원하는 농업인들도 16일 오후에 임대하여 사용한 후 연휴가 끝나면 반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군은 연휴기간 농기계 임대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을 이장과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무안군은 8일 개소한 운남분소를 비롯해 무안읍·일로읍·해제면의 4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35종 681대의 농기계를 비치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 출처 : 무안군



■ 영광군, 양파기계화 교육 및 시연회에 농민들 큰 관심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7일 양파기계화 교육 및 시연회를 실시하여 농업인으로 부터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 양파 기계화 교육은 양파 파종과 이식, 그리고 줄기제거 및 수확을 기계화 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을 높이고 적기에 이식 및 수확을 하고자 교육이다.
- 양파 이식기는 우리나라에서 승용으로는 처음 출시되었으며 작업이 편리하고 하루 8시간 기준 1ha를 식재 할 수 있으며 노지와 멀칭에서 모두 이식 작업이 가능하고, 양파 파종기는 전 자동으로 시간당 360판을 파종할 수 있다. 일괄 피복기는 쇠토 작업과 제초제 살포 및 피복을 동시에 작업 할 수 있는 기계다.
-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양파재배 기피 현상을 줄이고 관행 재배와 기계화 재배의 투자 및 소득을 비교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광군 관계자는 “금년 양파 기계화 교육 및 시연회와 시범재배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양파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체과정을 기계화 하도록 임대농기계 구입 및 보조 농기계 보급을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영광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우리 배 세계 곳곳에

- 구례 배·남원 춘향골배·고창 황토배기배·김제 지평선배, 해외로 수출 활발 -

- 구례군은 조생종 품종인 '원황'으로 지난 5월에 수출 선과장 승인을 받고, 8월에 대만 바이어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수출 길을 열었다.
- 남원과 고창·김제 등지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배가 해외 수출 길에 올랐다.
- 남원시는 지난해 대만·캐나다·홍콩 등에 수출했던 춘향골 배를 올해 역시 다양한 시장에 수출한다. 현재 원황배 44, 황금배 60톤이 선적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진행해 올해 안에 총 300톤의 배를 수출할 계획이다.
- 고창 황토배기 배는 최근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대미 수출을 위한 첫 컨테이너 선적작업을 갖고 황금배 16톤을 수출했다. 오는 2017년 3월까지 모두 600여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지난 2003년부터 미국·뉴질랜드·베트남·괌 등 다양한 국가에 배를 수출 중이다.
- 김제 역시 지난 6일까지 원황·화산·신고 등 3개 품종의 지평선배를 인도네시아와 캐나다·베트남·대만·태국·싱가포르 등지로 수출했다. 지난 6일까지 집계된 물량은 총 167톤이다.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 되면 450톤의 배가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우리 쌀 가공식품 유럽 시장 진출 노력볼 만

- 웰빙열풍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쌀 제품 수요 증가 -

-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쌀 가공식품이 간편한 글루텐프리(Gluten-Free) 제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 쌀로 만든 가공식품의 현지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파리지사에 따르면 유럽에서 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Ready To Heat, RTH) 쌀 제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RTH 제품 시장이 전년대비 48.3% 늘어났다.
- 이는 세계적인 웰빙열풍으로 건강식을 찾는 현지인이 늘어나면서 밀가루에 비해 칼로리가 낮고 영양이 풍부한 쌀 가공식품이 각광 받고 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밀가루 음식에 함유된 불용성 단백질 성분인 글루텐이 함유되지 않는 글루텐 프리식품 수요가 늘고 있는데, 글루텐 프리식품의 주원료 중 하나가 쌀이라 관련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것도 주요이유 중 하나다.
- 이에 aT 파리지사는 우리 쌀 가공식품 수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유럽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RTH 제품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즉석밥의 수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한류 인기로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식의 건강한 이미지와 영양 등의 특색을 살린 즉석비빔밥과 컵볶음밥·컵죽·컵밥 등 프리미엄 즉석식품의 진출도 유망하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배 '원황' 품종의 낙엽정도에 따른 이듬해 수량감소 및 경감방법

개발기술 내용

- 배 '원황' 품종의 낙엽시기가 빠르고 정도가 심할수록 당해연도 과실 품질이 저하되고 생육이 낮음
- 낙엽된 가지의 동해 처리결과 낙엽이 심할수록 전해질 누출율이 높고 동해 피해로 눈 발아율 낮게 나타남
- 8월에 40%이상의 낙엽 시 이듬해 착과량은 적어지고 과실품질도 낮으므로 낙엽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 파풍망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 필요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태풍피해에 의한 낙엽시기 및 정도에 따른 이듬해 수량감소 영향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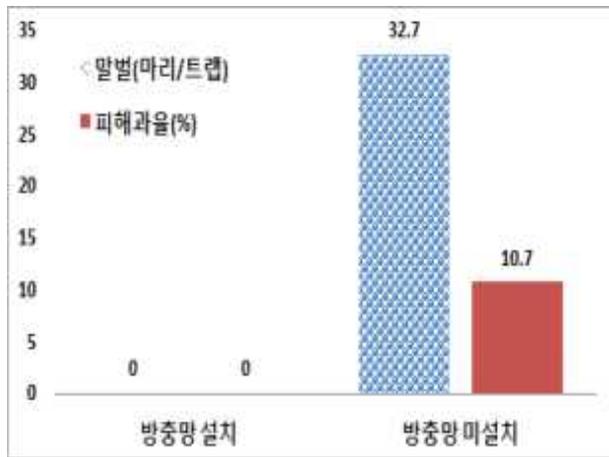
- 태풍피해 상습지역에서 표준 파풍망 설치로 낙엽 및 낙과피해 감소
- 4면 파풍망 시설에 의한 낙과피해 감소 : 소득 3,710천원 증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병삼

■ 말벌 피해예방을 위한 포도 간이 비가림재배에서 방충망 설치 효과

□ 개발기술 내용

- 유기재배 포도원의 비가림시설 상부와 측면에 방충망(5×5mm)을 설치하면 말벌피해를 차단할 수 있고, 꽃매미, 나방류, 조류 등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음



【말벌 차단효과】



【차광망 설치 전경】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포도 비가림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기술 실증 및 보급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방충망 설치에 의한 말벌 피해 차단으로 소득 349,550원(10a)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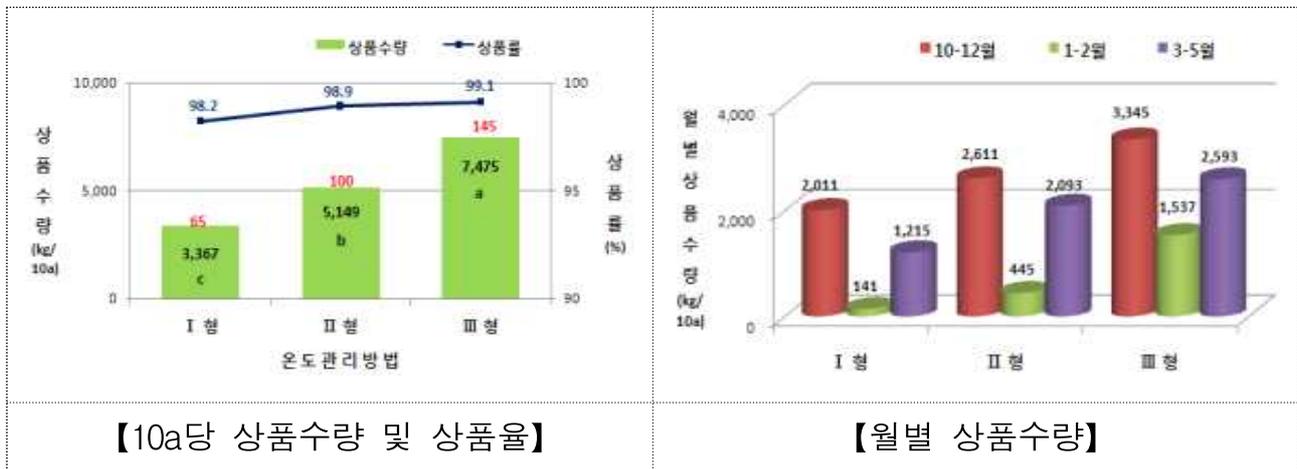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고숙주

■ 인디언시금치 가을작형 월동재배 경제적 가온방법

□ 개발기술 내용

○ 인디언시금치 가을작형 월동재배 수량증대를 위한 경제적 가온방법

- 1중 비닐터널 + 1중 부직포 터널 + 전열선 지중가온이 1~2월의 저온기 동안 적정 온도 유지로 상품수량 45% 증수



※ I형(2중 하우스+1중 비닐터널), II형(2중 하우스+1중 비닐터널+1중 부직포 터널), III형(2중 하우스+1중 비닐터널+1중 부직포 터널+지중가온)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인디언시금치 겨울 월동재배 농가에 영농활용 기술로 보급

○ 아열대채소 연구개발 신기술 재배 지침서 및 교육용 자료로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월동기 생산성 증가로 상품수량 증수 : 2,326kg/10a (5,149 → 7,475)

○ 농가소득 증대 : 6,285천원/10a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 자생쑥을 이용한 아로마 쑥비누 제조방법

□ 개발기술 내용

- 녹여붓기 비누베이스 총량에 쑥조합향료 2% 첨가시 세정 후 촉감, 유연성, 향 확산성 등과 잔향기호도, 잔향지속성이 우수하였음
- 아로미 쑥천연비누 사용감에서 세정 후 잔향 및 잔향기호도 등이 우수하여 아로마 효능과 소취기능이 있었음



【아로마 향균쑥비누】

	함료첨가량 처리구 첨가량	세정력	기포력	퍼짐성	보습력	산뜻함	유연성	세정후 잔향	잔향 기호도	총점
무처리	0	5	3	3	3	2	2	1	1	20
	0.5	5	3	4	3	3	3	2	3	26
	1	5	4	5	4	4	4	3	4	33
쑥그린	2	5	5	5	5	5	4	4	5	38
	3	4	4	4	5	5	5	5	5	37
	0.5	5	3	4	3	3	4	2	2	26
허브향	1	5	4	5	4	4	4	3	3	32
	2	5	5	5	5	5	5	4	3	37
	3	4	4	4	5	5	5	5	4	36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쑥자원을 이용한 아로마 향균 쑥비누제작 기술을 원하는 지역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 사업화 할 계획임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아로마 효능이 있는 향균 쑥비누 등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 판매화로 쑥 이용을 증대 및 소비촉진에 따른 지역 기업농 및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
- 아로마 오일 및 쑥추출물을 이용하여 농가에서 직접 쑥비누를 제작 판매할 경우 1인 1일 400개 비누 제작시 순수익은 73만원으로 고소득 가능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조경숙

■ 농업분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기술 세미나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9월 7일(수)에 농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를 자립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이 가능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는 에너지로 3종의 신에너지(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와 8종의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 있다.
- 2015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2,307천 TOE로 에너지 총생산량의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대비 6.8% 증가하였다. 농업인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이날 세미나에서 인하대학교 서태범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 현황과 농업분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고, 보성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김선환 대표는 자신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태양열 계간축열시스템 이용 사례를 발표하였다.
- 한국전력의 송성룡 차장은 전라남도와의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을 2019년까지 개발하고 2022년까지 실용화한다고 하였다. 본 기술이 실용화되면 태양광 등을 활용하여 농사에 필요한 에너지 자립화가 가능하고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20%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배추 농사 기계이식으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한다

- 배추 파종·정식 작업 일관기계화로 관행 대비 노력비 60% 절감 -
- 영암군(군수 전동평)과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9월 5일 영암군 시종면 손병인 농가 포장에서 배추 생산비 절감을 위한 파종 및 기계이식 재배기술 연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 이날 연시회는 배추재배 농업인 및 관계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종합 투입기술에 대한 효과 설명 및 현장시연 등이 실시되었다.
- 이날 연시회에서 참석자들은 인력작업으로만 이루어졌던 파종 및 이식작업을 기계화 할 수 있는 자동파종기와 동력이식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현장에서 배추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생산비 절감기술의 확대보급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시간도 가졌다.
- 전남농업기술원 임경호 농업경영연구소장은 “배추 자동파종 및 동력 이식재배는 영암 손병인 농가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재배법이다. 인력파종 및 이식작업을 기계로 대체하면 파종에서부터 정식작업에 소요되는 10a당 노동 투입시간을 24.7시간에서 8.4시간으로 66% 절감할 수 있고, 농가들의 신체피로도도 작업 능률도 50%이상 증대할 수 있다. 또한, 인건비는 210,450원에서 82,680원으로 60.7%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날 연시회에서 “이번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가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배추 재배농가에 확대 보급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 다양한 아이디어 선보여

- 전남농기원, 2017년 단감·포도 등 7개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실증지원-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에서는 저비용 고소득 농업실현을 위한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를 지난 9월 7일 개최하였다.
- 이날 경진대회는 사업계획서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9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 영예의 대상은 대학원에서 원예학을 전공하고 부모님의 대를 이어 단감농사를 짓고 있는 석사 청년농부 영암 '김스팜' 김태연(38) 대표가 차지했다. 김 대표는 “단감농사를 지을 때 감나무 키가 너무 커서 삼각사다리를 이용하여 가지자르기, 열매숙기, 수확작업 등을 해 왔는데 노동력과 생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며 “공중에서 걸어 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전기충전식 고소작업차와 저수고 수형구성 등을 통해 생산비를 23% 절감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 장성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반석힐링팜' 이남국(49) 대표는 “시설재배 시 수확시기를 60일정도 앞당겨 판매단가를 높일 수 있는 조기재배가 필요하다. 그런데 시설재배 시 난방비와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기름보일러 대신 축열주머니를 이용하여 난방비를 절감하고, 작업레일과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하여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통해 kg당 생산비를 33% 절감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화순에서 한우 210두를 키우고 있고 '둥이네농장' 김은주(42) 대표는 “고온기 축사온도가 외기온도보다 높아 고온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 및 번식기능 저하로 한우 사육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확보가 시급하다. 사료 작물 3기작 재배를 통해 조사료 구입비를 절감하고, 번식률 및 증체량 향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임경호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장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경진대회 입상한 경영체에게는 생산비 절감 아이디어를 실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경영체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며 “이 들이 성공모델이 되어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꾸지뽕나무 잎으로 누에를 키우다

- 특화작목으로 재배중인 꾸지뽕나무의 새로운 산업화 기술 개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꾸지뽕나무 잎을 이용한 누에 사육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꾸지뽕나무는 고혈압, 당뇨,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에서 약용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잎이 크고 가시가 없는 '대품'이라는 품종을 육성하여 전남지역에서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재배 중에 있다. 특히 신안군 섬지역인 암태, 팔금 등에서 약 50ha 규모의 대단위 재배가 되고 있다.
- 그러나 꾸지뽕나무는 그동안 열매 생산과 잎차 제조 외에 다른 가공 판매가 없었으며, 새로운 산업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신안군에서는 꾸지뽕잠업연구회 발족과 함께 꾸지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는 꾸지뽕나무 잎을 이용한 누에사육 기술개발과 꾸지뽕잎 이용 누에의 산업화를 위한 특성을 조사하게 되었다.
- 누에는 뽕잎만 먹고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오래 전부터 뽕잎이 부족할 때는 야생에서 자라는 꾸지뽕 잎을 따서 먹이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꾸지뽕 잎을 이용한 사육에 적합한 누에 품종과 먹이 공급시기를 구명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 그 결과 일반 뽕잎을 먹인 누에보다 유충기간은 조금 길어졌으나 꾸지뽕 잎을 먹여서도 충분히 누에를 사육할 수 있었으며, 유충 무게와 생존률을 비교하였을 때 백옥잠 품종이 더 우수하였고, 누에가 알에서 막 깨어났을 때는 뽕잎을 먹이다가 3령기부터 꾸지뽕 잎을 주었을 때 더 잘 자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는 더 많은 누에 품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꾸지뽕 잎을 먹인 누에의 화학적 특성을 구명하고, 다양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꾸지뽕 잎을 먹여 연간 200상자 정도 누에 사육이 가능해 질 것이고, 꾸지뽕나무를 이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이루어져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유자 고품질 안정생산, 현장 맞춤형 컨설팅

- 고흥 유자 수출작목반 농가 포장에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9월 7일 고흥군농업기술센터와 유자 재배 포장에서 유자 수출작목반 회원 및 수출 희망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자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과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전문 컨설턴트로는 단국대 조원대 교수, 도청 김준성 수출 지원팀장, 농촌진흥청 이성찬 연구관, 김경미 박사, 농산물품질 관리원 오세원 주무관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8명이 참여해 유자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농약 안전사용, 도정 수출관련 시책 등에 관해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 또한, 유자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병·해충 예찰과 적용 약제를 이용한 적기방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수출농산물의 경우 수출국의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수출국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생산단계부터 적용하여 적합한 농약을 선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유자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과 유자차 품질향상에 대해서도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 농업기술원 차성충 기술보급과장은 수출 경영체들의 현장애로 사항을 조기에 해결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출 대상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규격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출농가 및 수출 업체 등 현장맞춤형 전문컨설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봉지 씌우지 않는 배 재배로 노동력 줄인다

- 농촌진흥청, 7일 배 연구소에서 '무봉지 재배' 배 품종 현장평가회 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7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전남 나주)에서 배 재배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한 배 품종의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 배를 재배할 경우 검은별무늬병, 심식나방류 등 병해충 피해를 방지하면서 맑고 투명한 배 고유의 색이 잘 들도록 봉지 씌우기를 한다.
-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봉지를 씌우는 기간이 열매숙기(적과) 등 다른 작업기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봉지 씌우기 작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이번 평가회는 무봉지 재배가 가능한 배 품종을 소개하고 재배 현장과 과실 특성을 살펴보고 무봉지 재배의 효과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 무봉지 재배 시엔 병해충 피해가 가장 걱정인데 배 '한아름', '원황' 등 조생 품종은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병해충 피해가 적어 현재의 방제체계로도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 할 경우 전체 노동 시간의 15.4%(10a당 22.9시간), 생산비의 11.2%(10a당 403,700원)를 줄일 수 있다.
- 또한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한 배는 당도와 비타민C, 항산화 활성이 높아지는 등 과실의 맛과 기능성이 좋아진다.
- 단, 껍질색이 어둡고 탁해지는 경향이 있다.

- 일본에서도 노동력 절감을 위해 많은 농가에서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하며, 소비자들도 과실 외관보다는 당도 등 내부 품질 위주로 구매하고 있어 봉지를 씌우지 않은 과실과 봉지를 씌운 과실 간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황' 무봉지재배 과실 과피색



▲ 봉지

▲ 무봉지(정상과)

▲ 무봉지(일소피해과)

- 올해와 같이 일조량이 많은 경우 과실 껍질이 햇볕에 타들어가는 일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현재까지 햇볕에 바로 노출된 과실 외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 봉지를 씌우지 않고 배를 재배할 경우 과일 무게에는 차이가 없으나 숙기가 빨라져 봉지를 씌울 때보다 빨리 수확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배연구소에서는 앞으로 갈색, 황금색 등 껍질색이 다르고, 8월부터 10월까지 수확하는 여러 품종을 대상으로 실험해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선발하고 방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껍질색 개선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다양한 실용적인 재배 기술을 시험 중에 있다.
- 농촌진흥청 배연구소 임순희 농업연구사는 “봉지를 씌우지 않고 배를 재배할 경우 어려운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제체계와 재배기술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출처: 농촌진흥청

■ 버섯응애 친환경 방제법 국내 첫선 보인다

- 포식성 천적 '마일즈응애' 3회 뿌리면 피해 예방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최근 양송이 재배농가 생산량 급감의 주요 원인인 '버섯응애'를 천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법을 개발했다.
- 버섯응애는 배지가 오염되거나 불량할 때 주로 발생해 버섯 균사를 먹거나 자실체 조직에 구멍을 뚫어 피해를 입히고 수량을 감소시킨다. 또한 푸른곰팡이병 등 병해를 옮겨서 복합 피해를 일으킨다.
- 버섯응애는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늘어나 버섯 수확량을 줄어든게 하고, 생산을 전혀 못하게 한다. 오염된 농가가 이를 적절히 방제하지 않으면 다음 작기까지 계속 발생한다.
- 현재까지 등록약제와 방제방법이 없어 버섯응애가 발생하면 속수 무책으로 피해를 입었다. 일부 농가에서는 식물유래 천연물질 등을 이용해 방제하고 있지만,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에 제약이 많아 방제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번에 개발한 친환경 방제법은 버섯응애만 잡아먹는 포식성 천적인 '마일즈응애'(=스키미투스응애)를 이용하는 것이다.



▲ 버섯응애



▲ 버섯응애의 천적 '마일즈응애'

- 마일즈응애는 버섯과 사람에게 전혀 해가 없다.
- 양송이를 배지에 넣기 전 물 청소를 한 후(1회), 균 접종 후(1회), 복토 전후(1회)에 방사하면 버섯응애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포식성 천적의 처리 수는 165~230m² 재배시마다 2만 마리(2병)를 골고루 균상 위에 흩어 뿌려주면 된다. 처리횟수는 균 접종 후 버섯응애의 발생 수에 따라 2~3회 처리한다.
- 포식성 천적을 이용한 방제는 균상재배 버섯에서 할 수 있으며 병 재배에서는 할 수 없다.
- 또한 버섯응애 발생수가 많을 경우에는 사용을 삼간다.
- 균상재배는 푸른곰팡이 등 병이 발생하기 전인 재배 초기부터 천적을 처리하기 때문에 병해를 옅기는 문제가 없지만, 병 재배는 재배기간 내내 병해를 잘 옅이기 때문에 천적방제는 적당하지 않다.
- 그리고 균상 여기저기에 버섯응애의 발생수가 많을 때는 천적을 처리해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천적 처리수도 2배 이상 많아져 경제적인 부담이 크므로 반드시 발생초기에 이용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김형환 농업연구사는 “최근 양송이 재배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버섯응애의 친환경 방제법이 국내에서는 첫 선을 보인다”라며, “포식성 천적 마일즈응애는 ‘버섯응애’ 뿐만 아니라 ‘버섯파리’도 잡아먹어 2가지 해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고 버섯 생산량 증대를 안정적으로 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수수·조 수확기 병해충, 이렇게 관리하세요

- 농촌진흥청, 잡곡 수확기 주요 병해충의 특징과 관리법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잡곡 수확시기를 앞두고 수수·조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병해충과 관리방법을 소개했다.
- 수수의 수확기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에는 이삭곰팡이병과 왕담배나방, 조명나방, 기장테두리진딧물 등이 있다.

※ 수수의 주요 병해충



▲ 이삭곰팡이 병

▲ 왕담배나방 피해

▲ 조명나방 피해

- 이삭곰팡이병은 왕담배나방, 새 등으로 이삭에 상처가 난 뒤 곰팡이에 2차적으로 감염돼 생기는 병으로, 이삭 전체 또는 일부분이 흰색 또는 분홍색 곰팡이로 덮인다.
- 병이 심하게 발생한 지역에서 수확한 종자는 다음해에 파종 전 종자소독을 실시해야 발아 및 입모율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수수 종자소독제로 베노밀·티람수화제, 티오파네이트메틸·트리플루미졸수화제 2종이 등록돼 있다.
- 수수 왕담배나방은 수수의 이삭이 필 때 그 안에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이 꽃피는 시기에 꽃봉오리(화뢰)를 갇아 먹어 불임을 일으키거나, 이삭을 갇아먹어 수수의 수량 및 품질을 떨어뜨린다.

- 방제약으로는 인독사카브 액상수화제와 클로르플루아주론 유제 2종이 등록돼 있으며, 인독사카브 액상수화제는 1,000배액으로 희석해 수수 개화 말기에 1회, 등숙 초기에 1회, 총 2회를 이삭에 뿌려준다.
- 조명나방은 줄기를 주로 가해한다. 피해를 받은 줄기 부위가 붉은 색으로 변하면서 약해져 바람에 쉽게 쓰러지고 심하면 식물체가 말라죽는다. 기장테두리진딧물은 암녹색 또는 녹색의 몸체를 가지고 있으며, 잎 뒷면이나 줄기에 피해를 준다.
- 밀도가 높으면 이삭까지 발생하며 즙액을 빨아 먹어 말라죽게 한다.
- 현재 조명나방과 기장테두리진딧물에 등록된 약제는 없으나, 수수 노린재에 등록된 델타메트린 유제를 이용해 방제가 가능하다.
- 조 수확기에 발생하는 주요 병은 노균병이 있으며, 주요 해충은 조명나방, 왕담배나방, 애긴노린재 등이 있다.

※ 조의 주요 병해충



▲ 노균병 잎 뒷면 증상

▲ 조명나방 피해

▲ 애긴노린재 피해

- 노균병은 잎과 이삭에 발생하는데, 이삭이 나오는 부위가 갈변하면서 찢어지고 출수하지 못한다. 출수된 이삭은 씨껍질이 비대해 여물지 못하고 기형이 된다.
- 현재 등록된 약제가 없으므로, 다음해 다른 작물로 돌려짓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병든 작물은 모아서 태운다.
- 조명나방은 어린 애벌레가 줄기에 구멍을 내고 속을 파고 들어가 생활하며, 배설물을 밖으로 내보낸다.
- 수확 후 남은 줄기 등에서 애벌레로 월동하므로 수확 후 잔재물과 주변을 잘 정리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약제는 없으나 애긴노린재 약제로 등록된 에토펜프록스 유제를 이용해 방제 할 수 있다.
- 애긴노린재는 성충이 5.5mm 미만으로 매우 작고, 황금색 또는 회색빛을 띤 누런색의 바탕에 불규칙한 흑갈색 무늬가 있다. 이삭이 여무는 중기 이후부터 수확기까지 주로 발생하며,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이삭 당 100마리 이상으로 나타나 피해를 준다.
- 현재 조에서 애긴노린재에 대해 에토펜프록스, 펜티온 유제, 클로티아니딘 액상수화제 등 3종이 등록돼 있다.
-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운영남 농업연구사는 “수확시기 수수·조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병해충을 제대로 알고 방제를 하는 것이 잡곡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에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전통식품 대상품목 확대 및 규격 현실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을 신규로 12개를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65품목의 표준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국화차막장 등 12개 품목을 추가 제정함에 따라 총 83품목으로 확대되었다.
 - * 신규 제정 품목 : 국화차·막장·생식·수육·백삼·홍삼·혼합장·압착유, 건조채소류·수제비·연차·생강차
- 또한, 한과류 등 기존 주요품목의 표준규격을 유통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선호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 전통식품 표준규격 개정(65품목) : 한과류·메주·청국장·국수류 등
- 한편, 곰탕과 설렁탕은 곰국 규격으로 통합하였으며, 각각의 개별 규격은 폐지하였다.
- 아울러 인증제도의 효율적 관리와 해당업체 비용절감 등을 위해 주류관련 일부 품목 폐지하고, 술 품질인증 제도로 일원화하였다.
- 전통주는 규격이 유사한 전통식품과 술 품질인증제도 운영으로 인증업체가 중복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증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류에 대한 규격을 폐지하였다.
 - * 주류관련 폐지 규격 : 막걸리(탁주)·약주·청주·증류식 소주·리큐르

- 현재 전통식품 인증품은 국산 100%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인증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웰빙식품이지만, 일반식품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고 아직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소비를 확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금번 전통식품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유통현실에 맞게 표준 규격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기호에 맞춰 품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전통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 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술 품질인증제도를 정비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정부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업체의 중복인증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되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국내 농산물로 제조된 전통식품 소비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1992년에 도입되었다.
- 현재 544개 공장, 1,193제품에 대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와 우수식품정보시스템(<http://www.goodfoo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통식품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품목별 품질 인증기준 등을 검토한 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 제출처: 한국식품연구원 우수식품인증센터 ☎ 031-780-9151, 9153)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절차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석 대비 소 브루셀라병 검사 시간 단축

- 전남동물위생시험소, 명절 성수기 맞아 검사전산입력 인력보강 -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추석을 맞아 소 출하량이 늘어남에 따라 소 브루셀라병 검사 인력보강 등을 통한 검사시간 단축으로 농가의 적기 출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7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균에 의해 소, 돼지, 개 등의 유산과 불임을 유발하고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국내에서는 청정화를 위해 지난 2004년 이후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거래 및 도축장 출하 소에 대해 브루셀라병 검사가 의무화돼 있다.
- 이런 가운데 하루 평균 1천여 건이었던 소 브루셀라병의 검사 신청이 최근 1천 200여 건으로 평소 대비 약 20% 정도 늘었으며 이는 육류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농가 출하물량이 늘어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평시 4개 팀 8명의 검사 및 전산입력 인력을 6개 팀 14명으로 보강해 실험실 검사 지연 예방 및 검사 결과의 신속한 전산입력을 통해 거래 가축의 적기 출하를 지원하고 있다.
- 전남지역의 소 브루셀라병 농장 감염률은 그동안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과 농가의 자율방역으로 2005년 1.8, 2010년 0.13, 2015년 0.02%로 매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현재까지 단 한건의 양성축도 발생하지 않았다.
- 김상현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명절 기간에는 외부인 왕래가 잦아지는 만큼 농장 출입 차단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시설원에 지원사업 수요조사, 예비신청 등 내년도 사업 준비 본격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시설원예분야 '17년도 사업 수행을 위해 '16. 8. 29. ~ 9. 23. 기간 동안 지원사업의 실수요조사 및 예비신청을 받고 있다.
-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 시설)의 사업에 대해서는 '17년도 지역별 실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 첨단온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용자를 위한 담보여력, 사업대상 부지확인 등의 사업시행 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신청을 받아 사전확인 절차를 시작한다.
- 지금 추진되는 수요조사 및 예비신청을 기반으로 지역별 '17년도 사업규모 및 내용이 정해진다.
- 특히 신재생에너지시설과 첨단온실신축지원의 경우 대규모 공사의 특성 상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 제도를 도입('16)하여 신청시기가 앞당겨졌다.
- 정부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시설원예 농가는 해당 시·군청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전남의 선진농업기술, 라오스에 전파한다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라오스 참파삭주의 농업산림국 직원 3명을 초청하여 선진농업기술 연수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수는 그동안 축적한 농업기술개발 경험과 친환경 재배기술, 합성농약 대체 병해충 방제기술 등을 라오스의 젊은 인재들에게 전수하여 우호협력 관계 구축 및 전남농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 라오스는 쌀·커피·옥수수·사탕수수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배·단감·딸기 등 농업인들이 돈을 벌수 있고 수출까지 가능한 원예작물에 대한 재배 노하우를 자국의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 이번 연수에 참가한 쏘씨 싸야퐁(Somsy Xayyavong)은 최근 채소류와 과일의 소비가 늘고 있는 라오스에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받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낙후된 농촌 경제를 살리고 싶다고 연수 소감을 밝혔다.
- 김성일 농업기술원장은 “3개월의 짧은 연수기간이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라오스에도 농업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다”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아시아 유기농업·유전자원 관리 동반성장 이끈다

- 농촌진흥청, 'AFACI 기초기술 프로그램 연례평가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9월 7일부터 9일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AFACI 회원나라의 기초농업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AFACI 기초기술 프로그램 연례평가회'를 열었다.
- AFACI 기초기술 프로그램은 유기농업 기술 네트워크와 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시아 지역 기초농업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각각 2010, 2012년부터 실시해 왔다.
- 이번 연례평가회에는 방글라데시·부탄·인도네시아·라오스·미얀마·몽골·네팔·스리랑카·태국·캄보디아·베트남·키르기스 공화국·필리핀·한국 등 AFACI 14회원나라가 참여해 나라별 사업성과를 평가, 공유하고, 앞으로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 우선 '아시아 유기농업 기술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회원나라별 유기농 기술을 수집, 분석, 공유했던 1단계 사업(2010~2013년)과 나라별 유기농 모델마을을 구축한 2단계 사업(2013~2016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각 나라의 우수 사례를 분석해 새롭게 시작하는 3단계 사업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사업 추진 방안을 비롯해 앞으로 추진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에서는 식량, 원예, 특용작물 등 회원나라별 주요자원 탐색을 통해 우수자원 집단을 확보하고, 유용형질 평가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또한 과제수행을 통해 만들어진 우수자원 집단은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종자은행에 장기 보존해 회원나라들이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베트남 식품 소비트렌드 3대 키워드 : 유기농, 안전, 위생

- 경제성장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고품질 안전성에 관심 증대 -

- 베트남에서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농식품 수출 시, 안전과 위생 등 고품질이라는 이미지를 적극 내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최근 베트남인들의 식품 소비습관이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제품 안전성과 위생적인 사항, 유기농 재료 사용 여부 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 때문에 길거리 음식이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식품 등은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천연재료나 유기농원료로 만든 식품이나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식품업체의 제품, 수입 농식품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디아이 마케팅(DI Marketing)이 지난 3월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94%의 현지인들이 베트남 식품을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전문가들은 건강과 웰빙에 점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제품을 구입하는 베트남들의 소비 패턴을 고려해, 우리 수출 농식품업체들이 유기농재료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특히 제품을 구입할 때, 주원료의 사용량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현지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유기농', '천연재료 사용' 등과 같은 특징을 포장 전면에 내세운 제품들이 최근 들어 일반 제품과 비교해 판매량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현지에 수출되는 제품에 식품 안전성과 품질, 유기농 등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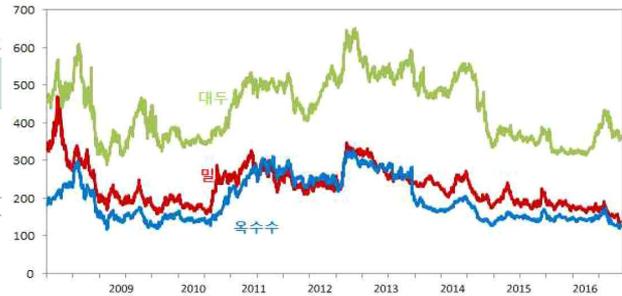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9. 09.(시카고 선물거래소)

USDA 수급 보고서에 앞서 상승한 옥수수, 대두 선물 가격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09.09)	전일대비	전월평균 ('16.8)	2015 평균
밀	138.15	▼0.3%	150	186
옥수수	129.92	▲0.9%	127	148
대두	366.40	▲0.5%	370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 9월물) 경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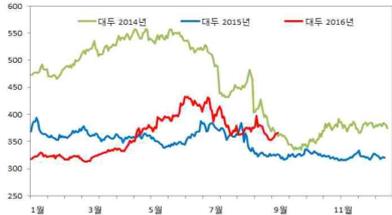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3% 하락 마감하였음. 거래자들은 USDA의 월간 수급 보고서에 앞서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음. 풍부한 국제 밀 재고량은 여전히 밀 시장에 가격 하락의 압력을 주고 있음. USDA는 9월 첫째 주 미국산 밀 661,100톤의 수출 판매를 보고하였음. 이는 기대치 보다 높은 수준임. 시카고 선물 거래소 적색 연질밀은 부셸 당 4.5센트 하락한 \$4.01에 마감하였으며, 켄자스 시티 상품 거래소 적색 경질밀은 부셸 당 2센트 하락한 \$4.15에 마감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9% 상승 마감하였음. USDA는 2016/17 미국산 옥수수의 주간 수출 판매를 1,093,300톤으로 보고하였음. 또한 USDA는 2015/16 marketing year로부터 3,430,100톤의 판매량이 이어져 왔다고 말하였음. 로이터에 의한 조사에서 분석가들은 2016 미국산 옥수수 단수를 감소시켰음. 옥수수 단수는 8월 에이커 당 175.1부셸에서 173.4부셸로 감소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 당 2센트 상승한 \$3.41에 마감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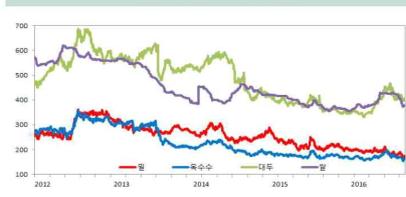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5% 상승 마감하였음. 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높은 수출 수요에 따른 결과임. 분석가들은 2016 대두 단수 추정치를 증가시켰음. USDA는 9월 첫째 주 대두 수출 판매량을 1,776,800톤이라고 보고하였음. 말레이시아 팜 오일 선물가격은 링깃화의 약세와 대두유의 강세로 상승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가격은 부셸 당 약 3.5센트 상승한 \$9.80에 마감하였음. 이번 주간 대두의 상승률은 2.7%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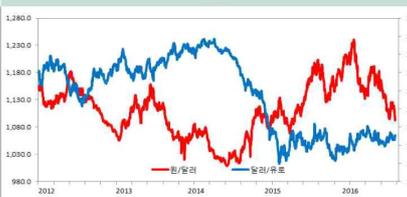
관련동향

- 수출 수요의 약세와 풍부한 공급량으로 인해 옥수수 베이스스 하락.
- 9일 국제유가는 미 원유재고 증가 전망, 미 원유 시추기 수 증가,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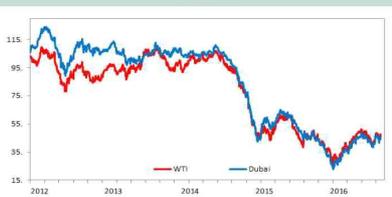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국제유가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75	-	원/달러	1,093.2	-
	옥수수	165	▲1.2%	달러/유로	1.1269	▲0.2%
	대두	407	▲0.2%	WTI	45.88	▼3.7%
	쌀	378	-	Dubai	45.45	▲1.4%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0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09.08(수출가격), '16.09.09(환율), '16.09.09(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한국 유기 가공식품 세계에 알리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9. 22.~24. 미국 볼티모어에서 개최되는 'BIOFACH AMERICA' 유기식품 전문 박람회에 한국유기농업협회, 유기 가공식품 9개 업체 등과 함께 한국관을 운영하여 국산 유기 가공식품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박람회 참가는 국내 유기식품 인증업체의 해외 홍보를 통한 유기식품 수출 발판을 마련코자 추진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는 '14년 7월 미국과 유기 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 체결로 국내 유기식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은 미국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 'BIOFACH AMERICA'는 세계최대 유기식품 박람회 전문기업인 BIOFACH(바이오파흐)가 주최하는 미 동부의 가장 주요한 유기식품 박람회로 매년 개최되며 전 세계 다양한 품목의 유기제품 전시와 함께 유기 관련 업체와 바이어가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 한국관으로 참가하는 업체는 청오건강, 선한세상, OKF, 녹차원, 강림오가닉, 철원친환경, 안면도농협, 자연그대로, 파머스맘 등 9개 업체이며, 품목으로는 유기농 미숫가루·보리차·옥수수차·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고춧가루·알로에주스·유자차·녹차·들기름·현미 등 39개 품목의 다양한 유기 가공식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그동안 한식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어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의 유기농 제품이 미국에서 관심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관에는 한국 유기농 시장에 관심 있는 해외 바이어와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최근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유기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 이번 미국 유기농 박람회 참가를 통해 국내 유기식품의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한농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농수산·도시인재전형 원서접수

- 9월 12일(월)부터 21일(수)까지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100명 모집 -
- 한농대는 12일(월)부터 21일(수)까지 2017학년도 수시모집 농수산 인재전형, 도시인재전형 원서접수 진행
- 원서접수 일정 : 9. 12.(월) 09:00 ~ 21.(수) 18:00
- 모집인원 : 농수산인재전형 78명, 도시인재전형 22명
 - 농수산인재전형 : 식량작물학과 8, 특용작물학과 6, 버섯학과 6, 채소학과 8, 과수학과 8, 화훼학과 8, 산림조경학과 6, 대가축학과 8, 중소가축학과 8, 말산업학과 6, 수산양식학과 6명
 - 도시인재전형 : 학과별 2명
- 지원자격
 - 농수산인재전형 : 농수산 계열 고등학교,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도시인재전형 : 특별·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의 경우 농수산인재전형 6.18:1(78명 모집 / 482명 지원), 도시인재전형 5.36:1(22명 모집 / 118명 지원) 기록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대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내내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시를 기원하며 풍요롭게 영그는 황금들녘처럼 뜻 깊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염원합니다,



※ 다음 호는 추석으로 휴간합니다.



주간

전남농업정보

102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